

善惡-倫理學的 研究 (一)

韓稚振

行文의 誤謬生疎와 推理의 苦澁難解가 不無하나, 初學 諸君에게는 參考될
듯하기로 多少 修正하여 掲載하는바이다(責任記者)

一

道德問題에 對한 一切 思考의 根本 出發點은 兩種으로 大觀할 수 있다. 如
何한 道德論者이든지 此 兩種 問題를 써날 수 업는 것이다. 第一種 問題는
道德判斷의 作用에서 起하는 것인데 卽 道德判斷의 根本的 表準點은 무엇인
가 하는 것이 그 하나이오 第二種 問題는 사람의 自發的 意志의 性質에서
發한 것인데 卽 意志와 活動의 根本的 目的 다시 말하면 結末은 무엇일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이다. 그런卽 무릇 道德問題는 動作에 對한 判斷에 標準問
題와 그 動作의 最後目的 問題와의 兩種으로 大分하게 되는 것이다.

第一種 問題는 다시 兩個 理論으로 說明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目的論이요
둘째는 形式論이다. 此 兩種 理論은 道德問題가 生길적부터 成行한 것이다.
古希臘에 잇서서나 今日에 잇서서나 그것들이 彼此 對立하여 잇는 感이 잇
다. 目的論은 모든 行動의 結果에 依하여 善惡의 分別을 하게 되는 것인데
萬一 그 結果가 그 行爲者와 그 環境에 끼치는 影響이 善하면 善하다 할 것
이요 惡하면 惡하다는 判斷을 하게 되는 것이다. 換言하면 그 行爲의 影響이
人類幸福을 保全하고 增進식히는 것이면 善이라 할 것이요 萬若不□하여 그
幸福을 紊亂케 하고 損傷케 하는 것이면 惡이라 할 것이다.

形式論은 그와 反對로 主張하되 모든 意志的 行爲를 判斷하는 善惡觀念은
그 行爲의 結果 卽 影響 如何에 依한 것이 안이고 善과 惡의 그 觀念은 意
志의 絶對的 性質을 包含하는 것이라 한다. 換言하면 善惡이란 것은 行爲의
影響에 依하여 變動되는 것이 안이라 엇더한 行爲는 그 自體가 絶對적으로
善하고 成惡하게 되어 잇다는 것이다. 그 天然적으로 善하고 惡하게 된 意志

的 性質은 仔細히 說明할 수 업스나 엇겟든지 事實이라고 認定한다.

以上 兩種理論을 略述하면 目的論은 行爲의 影響을 보고 善惡의 標準을 定하나 形式論은 行爲의 影響을 보지 안코 行爲 그 自體가 善하기도 하고 惡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東洋式의 孝道論은 形式論이다.

目的論의 主張의 反對로 孝道란 그 自體가 그 結果는 여하간 善하다고 보는 것이 形式論의 孝道論의 骨子일 것이나 以上에 말한 第二種 道德問題는 모든 活動의 目的은 무엇일가 하는 것이니 여기서도 두 가지 對答으로 大分 해야 論할 수 있다. 하나는 享樂主義요, 또 하나는 活動主義라고 할 수 있다. 享樂主義에 依하면 우리의 모든 活動하는 目的은 快樂 或 避苦痛이라 하나니 이럼으로 享樂은 絕對 或 最善이라 하게 된다. 다른 모든 所願은 이 最善을 엇기 爲한 手段·方法이라 한다. 그러나 活動主義는 主張하되 일반 意志의 活動은 享樂을 爲해야 나아가지 안코 生의 客觀的 內容 卽 生命은 全部 活動的인 것 만침 엇던 分明한 具體的 動作을 目的하고 躍進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生命은 樂을 어드라고 活動하는 것이 안이라 自我를 發育키 위한 活動 그것을 爲해야 前進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形式的 道德論인 『칸트』의 至上命令說이 잇스나 그것을 자서히[자세히] 檢討하여 보면 一種 活動主義에 不過한 것이다. 또한 享樂主義的 道德도 活動主義내에 屬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二

本論에서는 道德學의 第一問題가 되는 善惡判斷 標準을 論述할터인 바 全章의 立地를 單純히 示할 것 가트면 行爲의 影響을 보고 善惡의 標準을 定하는 것은 오른 道德學이라하며 또한 意志의 目的은 享樂이 안이라 活動 그것이라 하는 것이 合理的이라 結論한다. 이럼으로 吾人이 主張하는 道德學은 目的的 活動主義라 하겟다. 또한 享樂的 表現主義라고도 명칭할 수 있다. 이 道德思想을 事實的으로 說明하기 전에 吾人의 道德論이 通俗·流行되는 享樂主義와 近似하다는 오해가 잇슬 뜻함으로 目的論과 享樂 或 公理論의 術語上 分別을 할 必要가 있다.

그러면 功利란 名辭와 目的이란 名辭와의 分揀은 무엇일가? 功利論이란 文字는 英語로 『유칠리테리언리즘』에서 譯出된 것인데 英國 經濟學家 『셴덤 [벤덤]』과 『밀』學派에서 創造한 것이다. 該派의 有力者 『쓰림』씨는 自己가 그 名稱을 造作하엿노라고 自己 生活錄에 記入하엿다. 그런데 이 功利란 글字는 根本에 잇서 享樂主義와에 不可避的 關係를 갖고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享樂主義는 英國에서 功利主義라 부른다. 이런 고로 功利主義를 批評하

는 이들은 흔히 享樂主義와 同類라고 主張한다.

또한 吾人의 動的 道德思想이 從來에 功利主義思想과 흡사한 點이 만흔 까닭에 功利主義에 對한 批評者들은 우리의 思想을 一種의 享樂主義에 不過하다고 非難하게 되는 것이다. 이럼으로 吾人의 根本的 思想에서 從來에 使用하던 『功利』란 名稱을 捨어 버리고 『目的』과 活動이란 名辭를 使用하게 됨은 以上과 如한 誤解를 除去하기 爲함이었다. 또한 目的이란 것은 道德學에만 붓쳐가지고 모든 行爲를 說明하는 便利를 가진 바에 全宇宙論과에도 符合되는 것이 不少하다. 卽 宇宙內에 여하한 存在든 人은 快樂을 不認치는 安이한다. 차라리 完全한 生活은 快樂을 包含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서 享樂主義는 活動主義의 枝葉 問題에 不過한 것을 看做할 수 있다.